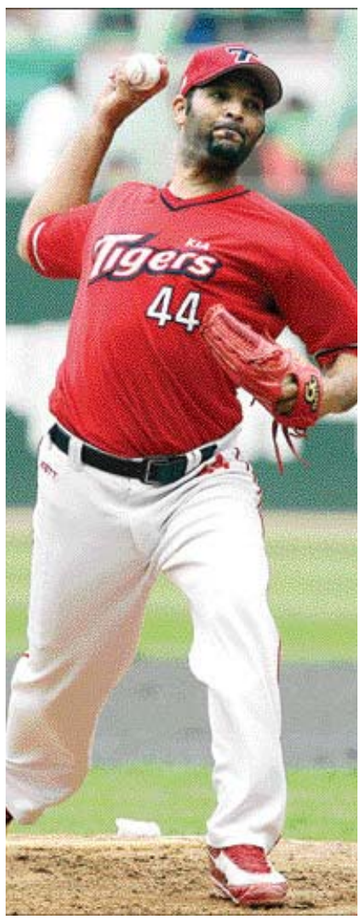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로페즈가 살아났다

후반기 5경기서 팀 4승 견인 … '미운오리'서 '수호신'으로

KIA 4강 싸움 탄력

'미운오리' 로페즈가 KIA 마운드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로페즈는 한국 무대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다승 공동 1위(14승), 한국시리즈 완봉승이라는 기록을 작성하는 등 '특급용병'으로 맹활약하며 KIA의 우승을 견인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무대인 올 시즌 로페즈는 KIA 마운드의 핵심전력으로 꼽혔지만 전반기 들쑥날쑥한 제구와 구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

승운까지 따르지 않자 로페즈는 마운드에서 평정심을 잃고 잇단 돌출행동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기 도중 실수를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고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덕아웃의 쓰레기통까지 걷어차며 '미운오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로페즈가 달라졌다.

지난달 27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와의 후반기 첫 경기를 시작으로 19일 넥센전까지 모두 5경기에 등판한 로페즈는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5경기 방어율은 2.73. 시즌 방어율이 4.92인 것을 감안하면 로페즈의 호투가 더욱 값지다.

로페즈가 등판한 5경기에서 팀은 4승을 거뒀다. 19일 넥센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로페즈는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팀 승리를 지켜냈다.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등 6개의 탈삼진까지 곁들이며 시즌 3승을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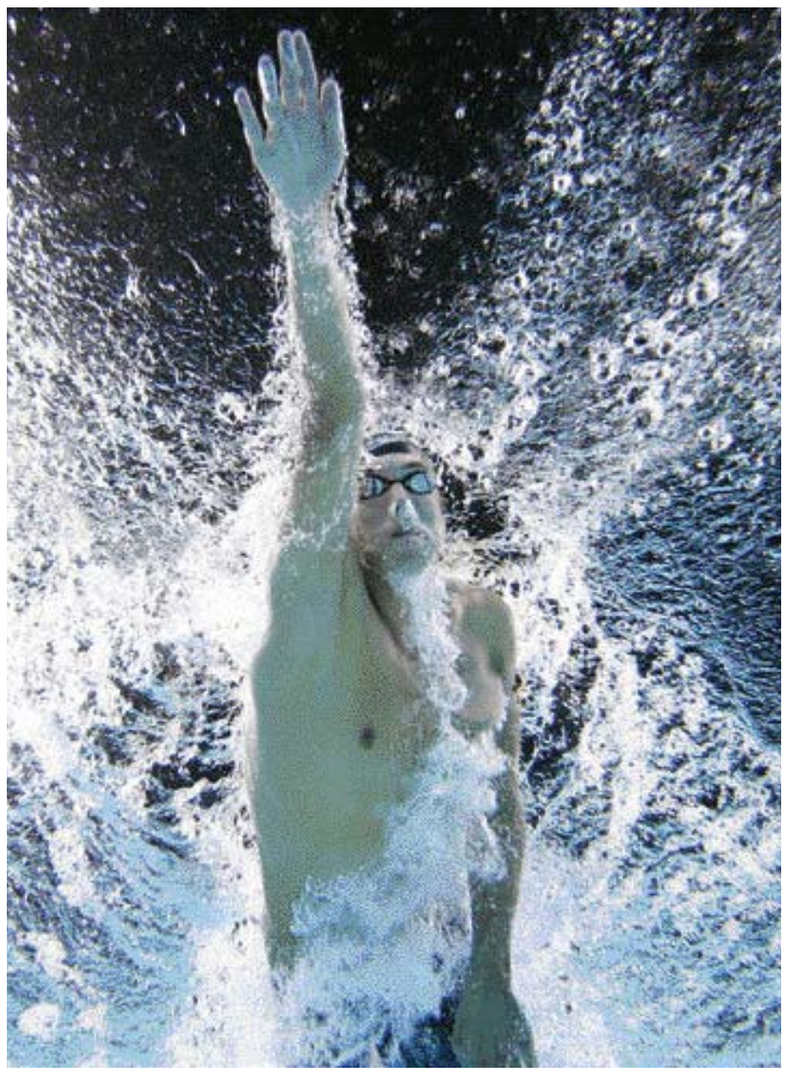
꾸준한 등판으로 올 시즌 133과 3분의2 이닝을 소화해준 로페즈는 마운드 위에서 한층 침착한 승부를 펼치며 2010 다승왕의 위엄을 되찾아가고 있다.

KIA는 지난해 로페즈와 구톰슨 두 용병이 27승을 합작해주면서 승승장구 했지만 올시즌 로페즈와 콜론이 만들어낸 승수는 '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로페즈의 막판 스퍼트가 이어지면서 KIA의 4강 싸움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로페즈의 부활속에 서재응의 마법같은 컨트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의 배짱투까지 더한 KIA는 '마운드 왕국'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탄해진 마운드 덕에 타자들의 뒷심까지 더해지면서 투·타의 동반 상승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로페즈의 부활로 새로운 원동력을 얻은 KIA가 가을 잔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눈길이 마운드에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영 황제의 '굴욕'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혼영 400m 예선에서 역주를 하고 있다. 펠프스는 4분15초38로 전체 4위에 올랐지만 한 국가에서 두 명까지만 결선에 오를 수 있는 대회 규정 때문에 예선 탈락했다. /연합뉴스

'셀틱맨' 차두리 첫 공격포인트

유로파리그서 도움 1개

차두리(30·셀틱)가 2010-201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처음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차두리는 20일(한국시간) 홈 구장인 스코틀랜드 셀틱 파크에서 열린 FC위트레흐트(네덜란드)와 경기에서 도움 1개를 배달해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1차전 홈 경기에서 두 골 차 승리를 거둔 셀틱은 1주일 뒤 열리는 원정 경기에서 비기거나 한 골 차로만 져도 48강 본선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차두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과 스코틀랜드 리그 개막전 등에 이어 이날도 풀타임 활약을 펼쳐 이적 첫해 주전 자리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같은 팀의 기성용(21)은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잡지마"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의 차두리(오른쪽)가 20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셀틱파크에서 열린 FC 위트레흐트와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미하이 네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역전 결승타

시즌 59타점 올려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침묵을 깨고 결승타를 터뜨리며 역전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 3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3-3으로 맞선 8회초 2사 1,3루에서 우전 적시타를 때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캔자스시티에 0-3으로 끌려가던 클리블랜드는 8회 안타 7개와 볼넷 1개를 묶어 5점을 뽑아 단숨에 뒤집었고 9회에도 2점을 보태 7-3으로 이겼다. 5타수1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타율 0.29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일본배구 득점왕 김연경 국내무대서 스파이크 쇼

일본 여자프로배구 JT 마블러스와 임대 기간을 1년 연장한 '거포' 김연경(22)이 1년 4개월여 만에 국내 무대에서 시원한 스파이크 쇼를 펼친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오는 28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하는 '2010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 대회'에 친정팀 흥국생명의 유니폼을 입고 뛴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일본 프로배구 JT에 임대 선수로 계약한 김연경은 2009-2010시즌 696점을 사냥하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김연경은 맹활약을 인정받아 임대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김연경의 새로운 임대 계약이 이번 대회 직후 시작되기 때문에 국제배구연맹(FIVB) 출전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JT도 김연경이 비시즌 기간 한국 무대에 뛰도록 양해를 해줬다. /연합뉴스

"첫 골 쏜다" 박지성·이청용·박주영 출격 대기

'산소 탱크'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010-201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풀럼FC와 경기에서 시즌 첫 출격을 노린다.

맨유는 23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풀럼과 2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지난 17일 시즌 개막전이었던 뉴캐슬과 경기에 결장했던 박지성이 출전할지가 관심이다. 박지성은 지난 시즌에도 개막전 버밍엄시티와 경기에 빠졌다가 2라운드 번리와 경기 때 처음 출전했었다.

박지성은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 참가와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 탓에 뉴캐슬과 개막전에 결장했지만 이번 풀럼과 경기를 통해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팀내 자리를 어느 정도 굳힌 박주영(25·AS모나코)과 이청용(22·볼턴)도 시즌 첫 공격 포인트에 도전한다. 18일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라운드 몽펠리에와 경기에서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겪은 박주영은 22일 오전 2시에 RC렌을 상대로 시즌 3차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김영희씨 장남 대석(사법연수원생)군 김태영(란체스터 원장)·최명자씨 장녀 명륜(서울 방배초 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부음

▲이홍재(前 순천대학교 농학부 학장) 별세 정태씨 부친상=발인 21일(토)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061-759-9090.

▲송상익씨 별세 병훤(LIG보험 부장)·차선·차원씨 부친상 임호천(공인회계사)·김우현(법무부 법무심의관)씨 빙부상=발인 21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홍기섬씨 별세 최희영·희갑·계순·희진·희경·희정씨 모친상=발인 21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윤평구 님(남/77세)
子/子婦 : 윤길현·이순자, 준영/김정순, 성영·조선미, 삼영(전북대총장)무이세·김지숙
女/壻 : 윤정옥·윤정옥
• 호실 : 201호 • 발인 : 8월21일 • 장지 : 화순이양선영

故 김규순 님(여/88세)
子/子婦 : 이월호·김미호, 현호·최매진
女/壻 : 이한정·김성광, 세진·김현철
• 호실 : 401호 • 발인 : 8월22일 • 장지 : 영락공원

故 남기성 님(남/75세)
子/子婦 : 남창영·기순자, 수영·이영순, 기영·
女/壻 : 남연희·최성철
• 호실 : 101호 • 발인 : 8월22일 • 장지 : 영락공원

故 박무원 님(남/72세)
子/子婦 : 박종대, 종혁·김지연
女/壻 : 박종아·양수열
• 호실 : 402호 • 발인 : 8월21일 • 장지 : 담양현주교묘지

마음까지 편안한 - 금호장례식장 ☎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공매철·칠석·영만 씨 모친상 발인 : 8월22일(일)10시
장지 : 해남옥천면선영 연락처 : 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